



TV / R 프로그램 기획안



제작팀/제작사	청소년팀	연출자	김혁조
프로그램명	청소년 심리 드라마 '나는' (또는 엔 닷 캠)		
매체	TV		
포맷	드라마 (청소년 심리 드라마)		
대상 시청층	청소년 및 일반성인		
방송시간 방송시간	<p>가. 시간 : 매주 수, 목, 금 19:50-20:00</p> <p>나. 이유 : 심리극의 특성상 10분 정도의 커팩트한 구성 필요. 3일 정도의 편성을 통한 프로그램 노출 극대화.</p>		
기획의도	<p>가. 개관 : 인간은 누구나 특정한 상황과 대상에 대해 심리적 집착과 갈등을 겪게 됨. 특히 세계관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갈등은 질풍노도와 같음. 예나 지금이나 청소년들의 가장 큰 불만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는 것.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. 그들이 겪는 내적 갈등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이전에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, 또 특정한 상황과 대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편에 서서 제대로 읽어 내야함. 그 이유는 청소년과 멀어져 있는 우리 어른들과의 간격을 좁히는데 가장 필수적인 첫 걸음이기 때문.</p> <p>나. 목적 : 1. 청소년들의 입장에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그들 자신과 특정한 대상 및 상황에 대해 겪는 그들의 심리적 갈등을 밀도 있게 그려내 3. 그들에게 기댈 언덕(고민해소의 장)을 제공하고 4. 성인들에게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. <p>다. 기대효과 : 1.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내 놓을 수 있는 탈출구가 될 수 있다.</p> <p>2. 청소년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.</p> <p>3. 예상 시청률 1-1.5%</p>		

	<p>가. 프로그램의 핵심적 특징 :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건중심의 기승전결과 같은 일반적 구성을 벗어난 인물의 심리에 초점한 이미지 중심의 구성 지향. 미묘한 심리를 다루기 위한 나레이션 기법 및 판타지 기법의 활용. FS-MS-1S등과 같은 기존의 영상문법을 벗어난 화면채색,CU중심 등의 독특한 영상기법의 활용. 소재발굴과 청소년들의 고민해소의 장이 될 수 있는 사이트 운영.
제작방향	<p>나.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: 그 동안의 청소년 드라마는 폭력, 성, 교우관계, 성적 등과 같은 큰 주제들을 주로 다루어 왔다. 그 결과 아 이템의 고갈과 해당 소재에 대한 밀도 높은 이야기를 끌어내지 못 했지만, 이는 구성상의 문제와 맞물려 (사건중심의 '사건재시-전개-갈등-화해'식의 일반적인 드라마 구성에 집착) 시청자들에게 식상함을 줬다. 따라서 발냄새, 핸드폰, 딥안지, 선생님의 벨트 등과 같은 작은 이야기 중심의 청소년 심리를 다룬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드라마를 구현함. 이는 타방송사의 청소년 드라마들과 차별화됨.</p>
	<p>다. 예상 문제점 및 대책 : 큰 사건 중심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심리를 다룬으로써 드라마적 긴박감이 떨어질 수 있음. 이는 인물의 내적 갈등을 최대화하고 이미지 중심의 독특한 영상구성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임.</p>
	<p>라. 적절한 출연자 : 기존의 청소년 드라마에서 축적된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, 오디션을 통해 새로운 인물들을 보충함. 타방송사에서는 청소년 드라마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캐릭터의 인물들이 E방송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.</p>
예상 제작비	<p>마. 시청 대상층 유인 방안 :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청소년 상담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유인함. 또한 청소년 관련 단체들과 연계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함.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소재공모 등 회사 차원에서의 이벤트도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.</p>
제작 여건 / PD 제작경력	<p>가. 편당 제작비 : 700만 원 나. 총 제작비 : 78편 (3편 × 26주) × 700만 원 = 5억 4600만 원</p> <p>가. 인력 : PD 3명 나. ENG : 편당 4회 다. 스튜디오 : 가정집, 교실, 교무실</p>
예상 아이템	<p>딥안지(시험에 대한 강박관념), 발냄새(신체적 캡플렉스에 대한 고민), 핸드폰(갖고 싶은 것에 대한 집착), 선생님의 벨트(선생님에 대한 편협된 생각), 피부(남자인 나는 피부가 왜 이렇게 고울까? 미치겠다.), 도시락(난 왜 매일 쏘세지냐?), 책상(닦시가 너무 많아 바꾸어 달라고 해야 할텐데..), 나의 방(동생놈을 쫓아내야 할텐데..) 등 무궁무진한 아이템들이 있음.</p>